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영민-상편 ◀

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 (1)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10문제)-----1쪽
- (2) 글로 쓰는 나의 꿈 (21문제)-----7쪽
- (3) 시각 상과 촉각 상 (47문제)-----16쪽

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 (1) 향수 (54문제)-----38쪽
- (2) 장마 (56문제)-----62쪽
- (3)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 (44문제)-----98쪽
- (4) 한 그루 나무처럼 (35문제)-----129쪽

3. 영킨 삶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

- (1)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38문제)-----149쪽
- (2)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32문제)-----170쪽

4. 우리말, 바르게 읽고 쓰기

- (1) 음운의 변동 (63문제)-----190쪽
- (2) 우리말 바로 쓰기 (75문제)-----214쪽
- (3)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20문제)-----240쪽

◆빠른 전체 정답-----254쪽

◆해설-----257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 명칭

◆핵심 정리

갈래	논설문	성격	설득적, 논리적, 비판적
제지	스마트폰 중독		
주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그 해결 방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시작 부분에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이해를 도움. • 객관적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함. •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함. 		

◆구성

서론	일상화된 스마트폰 사용의 양면성
본론 ①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실태
본론 ②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본론 ③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결론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당부

1. 스마트폰 사용의 양면성

장점	단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일상생활이 편리해짐.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성이 있음.

2.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	글쓴이의 관점
실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우려하며 비판적으로 인식함.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성인의 약 2배 수준임. •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3.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위험한 이유	구체적 근거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음.	공부나 일을 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작업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이 떨어짐.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음. • 스마트폰이 없을 때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낌. •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함.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피로해지고 목, 손목, 척추 등에 이상이 옴. •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됨. •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움. •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하여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음.

4.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방안	구체적 내용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해 전문적인 진단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쉼 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및 전화 상담하기 • 상담 기관을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기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 및 응용 프로그램 사용 내역 기록하기 •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몇 개로 한정하여 사용하기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정해 준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식사, 가족 대화, 취침 전후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스마트폰을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나 학습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스마트폰 사용하기 •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온라인 수업

1.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를 읽고, 글쓴이가 제시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정리해 보자.

삶의 문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3-(1)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이론편]

2. 이 글의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고, 다음 질문에 따라 평가해 보자.

방안 1	방안 2	방안 3	방안 4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본다.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 본다.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한다.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 방안은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하는가? • 해결 방안은 공정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가? • 해결 방안은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전문적인 진단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자가 진단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결 방안이다.	일상생활 중 스마트폰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시간과 장소를 가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위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공간에서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것이 사회적 예절이므로 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가치에 부합된다.	입시 때문에 바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므로 직접 친구를 만나서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라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의 장점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제안은 공정하다.

3.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방안 중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써 보자.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	이유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한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확대되어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청소년 여가 및 문화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구들과 직접 만나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1. 글쓴이가 제시한 스마트폰의 장점은 무엇인가?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2.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3. 소재목(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으로 미루어 볼 때, 다음에 전개될 내용은 무엇일까?

→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4. 글쓴이가 스마트폰을 ‘요술 방망이’에 빚댄 이유는 무엇일까?

→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건강과 인간관계를 모두 잃을 수 있다. 즉,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술 방망이’에 빚댄 것이다.

목적 **노력**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 영삼이가 <보기>의 개요를 참조하여 논설문을 쓰려고 한다. 다음 물음들에 답하시오.

<보기>

주제 :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그 해결 방안

서론 : 일상화된 스마트폰 사용의 양면성-----㉠
본론

1.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실태----㉡
2.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 a. 집중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가 올 수 있다.
 - b. 각종 신경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 c.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d.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3.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 a.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해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다.
 - b.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 본다.
 - c.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정해 준수한다.
 - d. 스마트폰을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일한다.

결론 :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당부-----㉤

건대부속고등학교 (서울)

1. 아래의 자료가 영삼이의 글쓰기에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은 <보기>의 ㉠~㉤ 중 어느 곳인가?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2015년 조사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2.1퍼센트, 잠재적 위험군은 11.4퍼센트이었던 것에 비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4.0퍼센트, 잠재적 위험군은 27.6퍼센트였다. 청소년 열 명 중 세 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셈인데,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이다.

- ㉠ ㉠
- ㉡ ㉡
- ㉢ ㉢
- ㉣ ㉣
- ㉤ ㉤

건대부속고등학교 (서울)

2. 다음은 영삼이가 <보기>의 ㉢에 활용하려고 수집한 내용이다. 이 중에서 그 분류가 다른 하나는?

- ㉠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장애 및 만성피로가 생겨난다.
- ㉡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 ㉢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감정의 조절이 어려워진다.
- ㉣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게 된다.
- ㉤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중 매체 학자들은 스마트폰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기간에 우리의 일상을 장악한 도구라고 말한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할 때에만 해도 많은 전문가는 휴대 전화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그러한 호언장담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중략>

먼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친구가 읽었는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궁금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두뇌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 버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를 분산되고 능률도 떨어진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이후에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긴다. 또한 자극이 없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분과 사고 기능 등을 조절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작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목이나 손목, 척추 등에 이상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상식이라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중독은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2011년부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음 가능 물질'로 분류하였다.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체온이 상승해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이 신체 건강에 끼치는 피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 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상 세계에 몰입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하여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가상 세계에서의 비방이나 헐담으로 시작된 다툼이 현실 세계에서의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 누리소통망(SNS)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 행동을 저지르고는 이를 자기의 계정에 올려 충격을 준 사례도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일상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현재의 상태가 심각하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혹시 인정하더라도 치료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가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스마트 쉽 센터’ 누리집(www.iapc.or.kr)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해 본 후,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만약 집 근처에 ‘건강 가정 상담 센터’나 ‘청소년 상담 센터’와 같은 상담 기관이 있다면 이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 전문 상담사가 지긋지긋한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도 알려 준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 보기를 권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지 등을 스스로 기록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도 좋다. 책상 서랍이 물건으로 복잡하게 가득 차 있으면 서랍 활용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이 많으면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도 몇 개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략>

넷째,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학교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할 때에는 디지털 기술만큼 유용한 것도 없다. 그러나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굳이 스마트폰으로 할 필요는 없다. 스마트폰의 누리소통망(SNS)이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지만, 이것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용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어 준다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수택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 동일한 문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비교하여 분석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 ㉣ 문제의 원인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비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수택고등학교 (경기)

4.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되어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 ㉡ 도파민의 분비 감소로 쾌락 자극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며, 세로토닌의 분비 증가에 따라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 ㉢ 발암 가능 물질인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체온을 상승시킴으로써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주어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 ㉣ 작업 기억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주의 분산과 능률 저하로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 성적이 떨어지기도 한다.
- ㉤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어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수택고등학교 (경기)

5.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일상생활 중에 빈번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데 사용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 ㉡ 스마트폰 활용에는 장점도 있을 텐데 단점만 언급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라는 것은 편협적인 판단이 아닐까?
- ㉢ 자가 진단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중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보라는 것은 너무 성급한 권유가 아닐까?
- ㉣ 사람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목적이 다른데 필수적인 응용프로그램 몇 개를 지정해주고 그것만 사용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해결책이 아닐까?
- ㉤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주변 사람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 실제로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2015년 조사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2.1퍼센트, 잠재적 위험군은 11.4퍼센트이었던 것에 비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4.0퍼센트, 잠재적 위험군은 27.6퍼센트였다. 청소년 열 명 중 세 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셈인데,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먼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친구가 읽었는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궁금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두뇌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 버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를 분산되고 능률도 떨어진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이후에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긴다. 또한 자극이 없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본과 사고 기능 등을 조절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작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목이나 손목, 척추 등에 이상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상식이라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중독은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2011년부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였다.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체온이 상승해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이 신체 건강에 끼치는 피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 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상 세계에 몰입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하여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가상 세계에서의 비방이나 헐담으로 시작된 다툼이 현실 세계에서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 누리소통망(SNS)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 행동을 저지르고는 이를 자기의 계정에 올려 충격을 준 사례도 있다.

- 고영삼,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영북여자고등학교 (경기)

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일상생활 속 경험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 ㉢ 성인과 청소년의 차이를 비교하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 ㉣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 스마트폰에 중독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북여자고등학교 (경기)

7.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스마트폰 사용의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스마트폰의 사용량의 측면에서 중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 인간의 두뇌의 기억 용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여러 일을 동시에 하더라도 공간은 부족해지지 않는다.
- ㉢ 도파민과 같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 ㉣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되어 신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 ㉤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지각능력에도 영향을 끼쳐 현실에서 일탈 행동을 벌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협력 정리

◆핵심 정리

갈등	협상 담화	성격	설득적, 논리적
제지	음악실 사용		
주제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단계 - 조정 단계 - 해결 단계’의 절차에 따라 협상이 전개됨. • 협상을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냄. 		

◆구성

시작 단계	음악실 사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함.
조정 단계	음악실 사용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 검토함.
해결 단계	음악실 사용 시간 및 방법을 합의함.

1. ‘시작 단계’에서의 협상 내용

갈등의 원인 분석	→	교내 합창 대회에 참가하는 재민네 반과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에 참가하는 밴드 동아리 모두가 집중 연습을 위해 음악실 사용을 원함.	
문제 해결의 가능성 확인	→	정연	재민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음.	밴드 동아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할 생각이 있음.

2. ‘조정 단계’에서의 협상 내용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 이해	→	재민	정연
		밴드 동아리가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외부 대회에 출전하며, 음악실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함.	교내 합창 대회가 코앞이라 재민네 반에게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함.
대안 제시 및 상호 검토	→	재민의 대안	정연의 검토와 대안
		재민네 반이 주중에 하루와 주말 이틀, 즉 일주일에 삼 일만 음악실을 사용하고, 밴드 동아리가 나머지 사일을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에는 강사의 연주 지도가 예정되어 있어서 재민의 대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말 오후 네 시 이후부터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함.
		정연의 검토와 대안	재민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 네 시 이후에는 반 친구들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정연의 대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 주말은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신 재민네 반이 주중에 사일 동안 원하는 시간에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민네 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안을 수용함. (‘해결 단계’에서 정연은 재민의 대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

3. '해결 단계'에서의 협상 내용

타협과 조정을 통한 합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시부터 여섯시까지는 재민네 반이, 나머지 시간과 주말에는 하루 종일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함. • 밴드 동아리가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재민네 반에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고, 재민네 반은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를 맡아 관리함.
----------------------	---	---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그래픽 정리

1. 이 협상의 '시작 단계'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갈등의 원인 분석	교내 합창 대회에 참가하는 재민네 반과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에 참가하는 밴드 동아리 모두가 집중 연습을 위해 음악실 사용을 원함.
-----------	---



문제 해결의 가능성 확인	'정연'의 입장 한 달도 남지 않은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를 준비해야 하지만,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음.	'재민'의 입장 밴드 동아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음악실 사용 시간을 정하려고 함.
---------------	---	--

2. 이 협상의 '조정 단계'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 이해	'재민'이 이해한 '정연'의 처지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외부 대회에 출전하며, 음악실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정연'이 이해한 '재민'의 처지 교내 합창 대회가 코앞이라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함.
----------------	---	--



대안 제시 및 상호 검토	'재민'의 대안 재민네 반이 주중에 하루와 주말 이틀, 즉 일주일에 삼 일만 음악실을 사용하고, 밴드 동아리가 나머지 사 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음.	→	'정연'의 검토와 대안 주말에는 강사의 연주 지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말 오후 네 시 이후부터만 음악실 사용을 양보할 수 있음.
	'재민'의 검토와 대안 주말 네 시 이후에는 반 친구들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주말은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신, 주중 사 일 동안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겠음.	→	'정연'의 검토 재민네 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다섯시부터 여섯시까지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안을 수용함. ('해결 단계'에서 정연은 재민의 대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

3-(2)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이론편]

3. 이 협상의 '해결 단계'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타협과 조정을 통한 합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는 재민네 반이, 나머지 시간과 주말에는 하루 종일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함. 또한 밴드 동아리가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재민네 반에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고, 재민네 반은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를 맡아 관리함.
---------------------	---

4. 이 협상에서 '재민'과 '정연'이 얻게 된 이익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재민'이 얻게 된 이익	'정연'이 얻게 된 이익
주중에는 음악실에서, 주말에는 교실에서 합창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됨.	음악실 청소 부담을 줄이고, 주말에 강사의 연주 지도를 받으며 집중 연습을 할 수 있게 됨.

5. '재민'과 '정연'이 서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끝까지 내세웠다면, 협상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예측해 보자.

음악실은 그전부터 우리 밴드 동아리가 계속 사용해 왔고, 우리는 학교를 대표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거니까 평일과 주말 모두 양보할 수 없어.	음악실이 동아리 방도 아닌데 우리가 왜 주말을 다 양보해야 하지? 주말에 따로 합창 연습을 할 만한 장소도 없으니, 우리도 양보할 수 없어.
---	--

6. 협상이 왜 중요한지 말해 보자.

→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과 주장이 달라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흔히 겪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에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더욱더 심화될 수도 있다. 협상은 타협과 조정을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갈등 상황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7. '재민'과 '정연'이 발화에 앞서 떠올린 생각을 빈칸에 써 보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했는지 파악해 보자.

떠올린 생각	→	발화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황에서는 협상할 수 없으니, <u>상대방의 생각이나 처지를 이해하며</u> 듣는게 좋겠어.	'재민'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 내리며) 정연아. 너희 동아리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
고개를 가우뚱하는 걸 보니 재민이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u>말의 의도와 핵심이 분명하게</u> <u>전준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u> <u>상대방의 생각이나 처지를 이해하며</u> 듣는 <u>달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u> 해야겠어.	'정연'	아, 미안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 요일과 시간을 미리 알려 주면 우리가 연습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말이었어.
<u>준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을</u> 사용해서 내가 재민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야겠어.	'정연'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입장만 강요할 수는 없지.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문제와 답안 작성

1. ‘정연’이 동아리 연습을 음악실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

→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 이미 음악실에 마련되어 있는 데다,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려면 드럼과 같은 크고 무거운 악기와 전자 장비를 모두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2. 주말에도 합창 연습을 하기 위해 ‘재민’이 떠올린 방안은 무엇인가?

→ 주말에 교실에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밴드 동아리에서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는 방안이다.

▶홈피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시작 단계]

데릴사위 : 제가 3년 7개월을 무료 봉사로 일해 드렸습니다. 제 성례 날짜를 딱 정하지요.

장인어른 :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성례 날짜는 당연히 정해야지. 네가 데릴사위이지 머슴은 아니지 않니?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지금은 일이 너무 바쁜 시기야. 그래서 일할 일꾼을 새로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당장 네 성례까지 시켜 주면 일꾼이 하나도 없어서 좀 힘들 것 같다.

데릴사위 : (흥분한 목소리로) 저도 지금 당장 성례를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례를 언제 할지 날짜는 정했으면 합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기에는 저의 인내심이 이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조정 단계]

장인어른 : (진정하라는 듯이 손을 펼쳐 내리며) 그래그래, 내 잘 알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지? 너의 성례를 최대한 빨리 시켜 주마. 대신 네가 일꾼을 구할 때까지 성례 후에도 조금만 일을 더 해 주는 건 어떠냐?

데릴사위 : 성례를 시켜 주신다면 제가 일을 조금 더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님, 다음 일꾼을 구하시는 겁니까? 또 기약 없이 저를 계속 부리시려는 건 아닌가요? 그것 역시 기한을 정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장인어른 : 어수룩한 줄 알았더니 요 녀석 허투루 넘어가질 않는구나. 좋다. 그럼 2년의 기한을 정하는 게 어떻겠니?

데릴사위 : 2년은 너무 깁니다. 전 최대한 1년을 생각했는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지? 성례를 최대한 빨리, 당장 다음 달에 시켜주시죠. 그렇다면 대신 제가 1년 반 정도 일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단계]

장인어른 : 1년 반이라..... 너 그 말 꼭 지키는 거지? 그렇다면 성례를 다음 달에 시켜 주마. 네 말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자.

데릴사위 :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도 좋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드디어 성례를 하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장인님.

건대부속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지애 : 데릴사위와 장인어른의 갈등의 원인은 데릴사위의 성례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어.
- ㉡ 예인 : 장인어른은 시작 단계에서 성례 날짜는 당연히 정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문제 해결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야.
- ㉢ 미주 : 데릴사위는 조정 단계에서 당장 성례를 시켜달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 상대방의 처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게 아닐까?

- ㉣ 수정 : 데릴사위는 조정 단계에서 장인어른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한 후 새로운 대안을 장인어른에게 제시하고 있군.
- ㉤ 지수 : 데릴사위와 장인어른은 해결 단계에서 결국 타협하여 합의에 이르고 있군.

건대부속고등학교 (서울)

2. '데릴사위'와 '장인어른'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데릴사위는 자신의 요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 ㉡ 장인어른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 ㉢ 데릴사위는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 장인어른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 ㉤ 데릴사위의 흥분한 목소리는 협상에서 충분히 적절한 태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시작 단계

재민 :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3반 반장 강재민이라고 해.

정연 : 안녕? 나는 밴드 동아리 회장 박정연이라고 해. 나도 반가워.

재민 : 요즘 우리가 음악실 사용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을 겪고 있잖아. 음악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해 보자.

정연 : 그래, 그게 좋겠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동아리는 지금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 준비로 한창 연습 중이야. 게다가 대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방과 후에는 물론, 주말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따라서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너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

재민 :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보다 당장 보름 뒤에 열릴 교내 합창 대회가 더 급하다고 생각해. 우리도 너희 동아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음악실 사용 시간을 잡겠지만, 주중과 주말 시간 모두를 양보할 수는 없어.

조정 단계

정연 : (흥분한 목소리로) 교내에서 열리는 합창 대회와 학교를 대표하여 나가는 외부 대회가 같니? 우리 동아리의 대회 출전은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일이야. 평소에도 우리 동아리가 매일 음악실을 청소하고 관리했는데, 청소 한 번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음악실 사용을 양보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

재민 :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 내리며) 정연아, 너희 동아리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음악실을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음악실 사용을 양보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서로의 상황과 일정을 고려해서 음악실 사용 시간을 정해 보자. 지금 우리 반은 갑자기 합창 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거라 다른 참가 팀에 비해 연습 시간이 매우 부족해. 최소한 일주일에 사 일 이상은 모여서 연습해야 하는 상황이야. 게다가 반 친구들이 직접 피아노의 바이올린 등을 연주할 거라 악기와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음악실이 꼭 필요해.

정연 : 교내 합창 대회가 코앞이라 너희도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악기 연습까지 하려면 더욱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에서 연습하는 게 좋겠지. 하지만 우리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 이미 음악실에 마련되어 있는 데다,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려면 드럼과 같은 크고 무거운 악기와 전자 장비를 모두 옮겨야 해서 힘들게 사실이야.

재민 :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말을 듣고 보니, 너희 동아리는 음악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기 힘들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반이 주중에 하루, 주말 이를 이렇게 음악실을 일주일에 삼 일만 사용할게. 대신 너희 동아리는 사 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거지?

정연 : 우리 동아리 상황을 고려해 줘서 고맙긴 한데, 주말에는 오전 열 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밴드 지도 강사님이 오셔서 연주 지도를 해 주시기로 했어. 아무래도 주말에는 우리가 음악실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주말에 오후 네 시 이후부터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래?

재민 : 그때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주말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신 주중에 사 일을, 우리 반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 동아리도 조금만 양보해 줘.

정연 : 너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대가 언제인데? 우리는 매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연습을 하거든. 우리 동아리는 각기 다른 반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서 특정 시간이 아니면 전체 인원이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

재민 : (고개를 가우뚱하며) 그럼 네 말은 주중에 매일 너희가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니?

정연 : 아, 미안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 요일과 시간을 미리 알려 주면 우리가 연습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말이었어.

재민 : 그렇다면 우리 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음악실을 사용할게. 시간은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가 좋겠

어. 합창 대회에 나가려면 적어도 매번 한 시간씩은 교박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 너희 동아리 연습 시간을 피하고 싶지만, 삼십 명이 넘는 반 친구들의 일정을 맞추려면 그 시간밖에 안 될 것 같아.

해결 단계

정연 :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입장만 강요할 수는 없지. 네 요구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씩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하도록 해. 대신 주말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음악실을 쓸게.

재민 : 음..... 그렇게 하자. 대신 주말에는 우리가 교실에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너희 동아리에서 전자 피아노를 빌려줄 수 있겠니? 주말에 아예 합창 연습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정연 : 그래, 마침 사용하지 않는 전자 피아노가 있어. 일반 피아노가 아니라 불편하겠지만, 전자 피아노로도 연습할 수 있다면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빌려줄 수 있어. 대신 우리 동아리의 연습 시간이 줄어든 만큼,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너희가 음악실 청소를 맡아서 해 주었으면 해. 이제 너희도 음악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우리 동아리에서 음악실 청소까지 하면 연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 같아.

재민 : (미소를 지으며) 응, 그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어. 그럼, 우리 합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는 우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너희 동아리가 사용하기로 했어. 그리고 주말에는 너희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신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너희가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는 거야.

정연 : 그래, 맞아. 그리고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너희 반에서 음악실 청소를 맡아 관리하기로 했어. 혹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꼭 협의를 하자.

재민 : 그럼, 이제 합의한 거다. 우리 서로 잘해 보자.

수택고등학교 (경기)

3. '정연'과 '재민'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정연은 재민이의 말에 다소 감정적인 태도로 대응하기도 하는군.
- ㉡ 재민과 정연 모두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며 듣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 재민과 정연 모두 의사소통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군.
- ㉣ 재민은 적절한 어조와 억양 등의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 정연은 재민의 반응을 확인하며 자신이 한 말의 의도와 핵심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군.

수택고등학교 (경기)

4. 다음은 정연이가 준비한 협상 계획서이다. 계획서의 내용대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 ㉠과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협상 준비 계획서

- 협상 대상
 - 3반 반장 강재민
- 우리 측의 입장

㉠
- 양보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
 - 주중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연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그 외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함
- 우리 측의 요구
 - 주말에는 반드시 우리가 음악실을 사용해야 함
 - 부족해진 연습 시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
- 우리 측이 얻게 되는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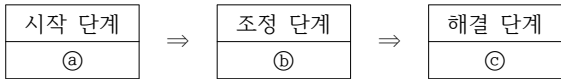
㉡

<조건>

- ㉠과 ㉡에 각각 두 가지의 내용을 서술할 것.
- ‘~다.’로 끝나는 문장으로 서술할 것.
- 윗글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서술할 것.

수택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이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에서 재민은 협상이 필요한 까닭과 무엇에 대해 협상할 것인지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있군.
- ㉡ ㉡에서 정연은 동아리 연습 시간의 현행 유지를 전제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군.
- ㉢ ㉢에서 정연과 재민은 자신들이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군.
- ㉣ ㉣에서 재민은 합창 대회를 준비할 연습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에 사 일 간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군.
- ㉤ ㉤에서 정연은 재민의 대안을 받아들여면서도 또 다른 추가 조건을 제시하여 재민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군.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연 : (㉠홍분한 목소리로) 교내에서 열리는 합창 대회와 학교를 대표하여 나가는 외부 대회가 같니? 우리 동아리의 대회 출전은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일이야. 평소에도 우리 동아리가 매일 음악실을 청소하고 관리했는데, 청소 한 번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음악실 사용을 양보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니?

재민 :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 내리며) 정연아, 너희 동아리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음악실을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음악실 사용을 양보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서로의 상황과 일정을 고려해서 음악실 사용 시간을 정해 보자. 지금 우리 반은 갑자기 합창 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거라 다른 참가 팀에 비해 연습 시간이 매우 부족해. 최소한 일주일에 사 일 이상은 모여서 연습해야 하는 상황이야. 게다가 반 친구들이 직접 피아노의 바이올린 등을 연주할 거라 악기와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음악실이 꼭 필요해.

정연 : 교내 합창 대회가 코앞이라 너희도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어. 악기 연습까지 하려면 더욱더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에서 연습하는 게 좋겠지. 하지만 우리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 이미 음악실에 마련되어 있는데다,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려면 드림과 같은 크고 무거운 악기와 전자 장비를 모두 옮겨야 해서 힘든 게 사실이야.

재민 :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말을 듣고 보니, 너희 동아리는 음악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기 힘들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반이 주중에 하루, 주말 이를 이렇게 음악실을 일주일에 삼 일만 사용할게. 대신 너희 동아리는 사 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거지?

정연 : 우리 동아리 상황을 고려해 줘서 고맙긴 한데, 주말에는 오전 열 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밴드 지도 강사님이 오셔서 연주 지도를 해 주시기로 했어. 아무래도 주말에는 우리가 음악실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주말에 오후 네 시 이후부터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래?

재민 : 그때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주말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신 주중에 사 일을 우리 반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 동아리도 조금만 양보해 줘.

정연 : 너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대가 언제인데? 우리는 매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연습을 하거든. 우리 동아리는 각기 다른 반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서 특정 시간이 아니면 전체 인원이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

-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영복여자고등학교 (경기)

6. 위와 같은 담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보다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 '시작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장황하고 포괄적으로 밝혀야 한다.
- ㉡ '조정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 ㉢ '조정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면, 상호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 ㉣ '해결 단계'에서 합의를 도출했다면 서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공적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영복여자고등학교 (경기)

7. ㉠, ㉡과 같은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 발화자가 화가 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 ㉡ ㉡은 상대방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 ㉢ ㉢에 해당하는 것은 억양, 어조, 강약, 높낮이 등이 있다.
- ㉣ ㉣에 해당하는 것은 말투, 표정, 몸짓, 손짓 등이 있다.
- ㉤ ㉠, ㉡ 모두 발화자의 단순한 표면적 메시지에 의미를 더해 발화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만들어 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협상 배경

'재민'네 반은 학급 회의를 통해 보름 뒤에 열리는 교내 합창 대회에 급작스레 참가하기로 했다. 반 친구들이 직접 피아노, 바이올린 등을 연주하며 합창곡을 부르기로 해서 악기와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음악실에서 연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재 음악실은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밴드 동아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다. 음악실 사용 시간을 두고 '재민'네 반과 밴드 동아리 간에 갈등이 발생하자, 반장인 '재민'이 밴드 동아리 회장인 '정연'을 만나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재민 :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3반 반장 간 재민이라고 해.

정연 : 안녕? 나는 밴드 동아리 회장 박정연이라고 해. 나도 반가워.

재민 : 요즘 우리가 음악실 사용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을 겪고 있잖아. 음악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해 보자.

정연 : 그래, 그게 좋겠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동아리는 지금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 준비로 한창 연습 중이야. 게다가 대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방과 후에는 물론, 주말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따라서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너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

재민 :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보다 당장 보름 뒤에 열릴 교내 합창 대회가 더 급하다고 생각해. 우리도 너희 동아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음악실 사용 시간을 잡겠지만, 주중과 주말 시간 모두를 양보할 수는 없어.

정연 : (흥분한 목소리로) 교내에서 열리는 합창 대회와 학교를 대표하여 나가는 외부 대회가 같니? 우리 동아리의 대회 출전은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일이야. 평소에도 우리 동아리가 매일 음악실을 청소하고 관리했는데, 청소 한 번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음악실 사용을 양보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니?

재민 :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 내리며) 정연아, 너희 동아리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음악실을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음악실 사용을 양보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서로의 상황과 일정을 고려해서 음악실 사용 시간을 정해 보자. 지금 우리 반은 갑자기 합창 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거라 다른 참가 팀에 비해 연습 시간이 매우 부족해. 최소한 일주일에 사 일 이상은 모여서 연습해야 하는 상황이야. 게다가 반 친구들이 직접 피아노의 바이올린 등을 연주할 거라 악기와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음악실이 꼭 필요해.

정연 : 교내 합창 대회가 코앞이라 너희도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어. 악기 연습까지 하려면 더욱더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에서 연습하는 게 좋겠지. 하지만 우리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 이미 음악실에 마련되어 있는데다,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려면 드럼과 같은 크고 무거운 악기와 전자 장비를 모두 옮겨야 해서 힘들게 사실이야.

재민 :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말을 듣고 보니, 너희 동아리는 음악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기 힘들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반이 주중에 하루, 주말 이를 이렇게 음악실을 일주일에 삼 일만 사용할게. 대신 너희 동아리는 사 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거지?

정연 : 우리 동아리 상황을 고려해 줘서 고맙긴 한데, 주말에는 오전 열 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밴드 지도 강사님이 오셔서 연주 지도를 해 주시기로 했어. 아무래도 주말에는 우리가 음악실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주말에 오후 네 시 이후부터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래?

재민 : 그때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주말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신 주중에 사 일을 우리 반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 동아리도 조금만 양보해 줘.

정연 : 너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대가

언제인데? 우리는 매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연습을 하거든. 우리 동아리는 각기 다른 반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서 특정 시간이 아니면 전체 인원이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

재민 : (고개를 가우뚱하며) 그럼 네 말은 주중에 매일 너희가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니?

정연 : 아, 미안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 요일과 시간을 미리 알려 주면 우리가 연습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말이었어.

재민 : 그렇다면 우리 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음악실을 사용할게. 시간은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가 좋겠어. 합창 대회에 나가려면 적어도 매번 한 시간씩은 꼬박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 너희 동아리 연습 시간을 피하고 싶지만, 삼십 명이 넘는 반 친구들의 일정을 맞추려면 그 시간밖에 안 될 것 같아.

정연 :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입장만 강요할 수는 없지. 네 요구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씩 너희가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씩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하도록 해. 대신 주말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음악실을 쓸게.

재민 : 음..... 그렇게 하자. 대신 주말에는 우리가 교실에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너희 동아리에서 전자 피아노를 빌려줄 수 있겠니? 주말에 아예 합창 연습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정연 : 그래, 마침 사용하지 않는 전자 피아노가 있어. 일반 피아노가 아니라 불편하겠지만, 전자 피아노로도 연습할 수 있다면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빌려줄 수 있어. 대신 우리 동아리의 연습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너희가 음악실 청소를 맡아서 해 주었으면 해. 이제 너희도 음악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우리 동아리에서 음악실 청소까지 하면 연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 같아.

재민 : (미소를 지으며) 응, 그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어. 그럼, 우리 합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는 우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너희 동아리가 사용하기로 했어. 그리고 주말에는 너희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신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너희가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는 거야.

정연 : 그래, 맞아. 그리고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너희 반에서 음악실 청소를 맡아 관리하기로 했어. 혹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꼭 협의를 하자.

재민 : 그럼, 이제 합의한 거다. 우리 서로 잘해 보자.

울산동천고등학교 (울산)

8.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협상은 양보와 설득을 통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다.

- ② 협상에 있어 타협과 조정이 가능하려면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 ③ 협상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 ④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 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 ⑤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논리적으로만 설득해야 서로 만족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울산동천고등학교 (울산)

9. 위의 협상에서 '재민'과 '정연'이 얻게 된 이익이 무엇인지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민' - 주중과 주말에 오후 다섯시부터 여섯 시까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함.
- ② '재민' - 주중에는 음악실에서 합창 연습을 할 수 있게 됨.
- ③ '정연' -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 부담이 줄어들음.
- ④ '정연' - 주말에 하루 종일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함.
- ⑤ '재민' - 주말에 교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정연'의 동아리에서 전자 피아노를 빌려 합창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됨.

울산동천고등학교 (울산)

10. 위와 같은 협상 진행 시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할 것.
- ② 우리 측 요구 사항을 상대측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
- ③ 상대측의 처지와 요구 사항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진행할 것.
- ④ '시작 단계-조정 단계-해결 단계'의 협상 절차에 따라 협상할 것.
- 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것.

“음운의 변동” 관련 명칭

1. 음운 변동의 개념과 유형

개념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유형	교체	어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
	축약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
	탈락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
	첨가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경우

2. 음운 변동 현상

교체 현상	비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국물[궁물] 유음 ‘ㄹ’이 비음 ‘ㄹ, ㅇ’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염려 [[염녀]]
	유음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실내[실래]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원소리되기	안울림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이 원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국밥[국뽕]
축약 현상	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ㅅ’과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백합[배깅]
탈락 현상	모음 탈락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두 모음이 이어서 소리 날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여 발음되는 현상 [예] 가- + -아 → 가
첨가 현상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뒤에 모음 ‘ㅣ, ㅜ’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 반모음 ‘ㅣ[j]’가 새로 생겨 발음되는 현상 [예] 되어[되어/되여]

3. 두음 법칙의 개념과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개념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적용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ㅣ, ㅏ, ㅑ, ㅓ, ㅕ, ㅗ, ㅛ’ 앞에서의 ‘ㄹ’과 ‘ㄴ’ 소리가 탈락하는 경우 [예] 남녀(男女) : 여자(女子) · ‘ㅏ, ㅑ, ㅓ, ㅕ, ㅗ, ㅛ’ 앞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경우 [예] 쾌락(快樂) : (ㄴ)원(樂園)

“음운의 변동” 크리틱 읽기

1. 다음 단어의 발음과 음운 변동의 유형을 쓰시오

단어	음운의 변화	음운 변동 유형
물+난리 → [물랄리]	‘ㄴ’이 ‘ㄹ’로 바뀌어 소리 남.	교체
낱+-은 → [나은]	받침의 ‘ㅎ’이 발음되지 않음.	탈락
솜+이불 → [솜니불]	‘ㄴ’이 첨가되어 소리 남.	첨가
놓+-고 → [노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소리 남	축약

2.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 보자.

단어	발음	단어	발음
강산	[강산]	바깥	[바깥]
동녘	[동녘]	풀숲	[풀숲]

3.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파악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위 규정대로라면 ‘국내’와 ‘첫눈’은 각각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국내’는 표기대로 [국내]로 발음하고, ‘첫눈’은 ‘ㅅ’이 어말에서 [ㄷ]으로 바뀌니까 [천눈]으로 발음해야 해요. 그런데 둘 다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위 규정만 보면 [국내]와 [천눈]으로 발음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궁내]와 [천눈]으로 발음했어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변화한 것은 ‘ㄴ’ 소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4. 다음 기자의 말에서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빈칸을 채워 보자

명절을 맞아 전통 시장에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이 김밥과 어묵 국물로 배를 채웁니다. 준비한 물건을 이미 다 팔고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는 가게도 보입니다. 손님의 발걸음을 잡는 다채로운 전들이 하나같이 맛있어 보입니다. 손님이 없을까 봐 염려했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종로의 전통 시장에서는 주변 실내 체육관과 연계하여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가족과 함께 전통 시장을 방문하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음운 변동 과정	음운 변동 결과	
국물[궁물]	ㄱ+ㅁ → ㅇ+ㅁ	ㄱ → ㅇ	→ 비음화
닫는[단는]	(ㄷ)+(ㄴ) → (ㄴ)+(ㄴ)	(ㄷ) → (ㄴ)	
잡는[잠는]	(ㅂ)+(ㄴ) → (ㅁ)+(ㄴ)	(ㅂ) → (ㅁ)	
염려[염녀]	ㅁ+ㄹ → ㅁ+ㄴ	ㄹ → ㄴ	→ 유음화
종로[종노]	(ㅇ)+(ㄹ) → (ㅇ)+(ㄴ)	(ㄹ) → (ㄴ)	
실내[실래]	ㄹ+ㄴ → ㄹ+ㄹ	ㄴ → ㄹ	
단란[달랄]	(ㄴ)+(ㄹ) → (ㄹ)+(ㄹ)	(ㄴ) → (ㄹ)	

4-(1) 음운의 변동 [이론편]

5.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 보고, 비음화가 나타나는 것과 유음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해 보자.

죽녹원[중노권]	한라산[할라산]	영릉[영릉]
----------	----------	--------

→ 비음화가 나타나는 것은 ‘ㄱ’이 ‘ㅇ’으로 바뀌는 ‘죽녹원’과 ‘ㄹ’이 ‘ㄴ’으로 바뀌는 ‘영릉’이다. 유음화가 나타나는 것은 ‘ㄴ’이 ‘ㄹ’로 바뀌는 ‘한라산’이다.

6.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의 음운 변동 과정을 써 보자.

<보기>				
낱는	→	[낱는]	→	[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규칙	

· **할는** → [할는] → [할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음화

· **부억만** → [부억만] → [부영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7.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구개음화 현상을 탐구해 보자.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고등학교도 같이 왔다.’라는 문장을 함께 읽어 볼까요? 이때 ‘같은’과 ‘같이’를 어떻게 발음했나요? ‘같은’은 [가튼]으로, ‘같이’는 [가치]로 발음했어요. 둘 다 ‘ㄷ’을 끝소리로 가진 실질 형태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진 것인데, ‘ㄷ’과 ‘ㅌ’으로 다르게 소리 나네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음 탐구 활동을 통해 함께 알아보까요?



의문	‘같은’은 [가튼]으로, ‘같이’는 [가치]로 발음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탐구	(1)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 보고, 음운 변동의 결과를 알아본다.	
	㉠ 굳은[구든] 같은[가튼]	㉡ 말이[마지] 같이[가치]
	↓	↓
	‘ㄷ, ㅌ’이 ‘ㄷ, ㅌ’으로 소리 난다.	‘ㄷ, ㅌ’이 ‘ㅌ, ㅌ’으로 소리 난다.
	(2) ㉡에 제시된 단어의 음운 변동 환경이 어떤 점에서 공통되는지 찾아 본다. → ㉡에 제시된 단어는 모음 ‘_ㅏ_’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음운이 변동된다.	
결과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_ㅏ_’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ㅌ, 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4-(1) 음운의 변동 [이론편]

8. 다음은 발음에 따른 혀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제시된 음운을 발음했을 때 혀가 닿는 위치를 고려하여 구개음화가 왜 일어나는지 말해 보자.



→ 'ㄷ, ㅌ'은 윗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소리 나고, 'ㄴ, ㄷ'은 입천장에서 소리 난다. 모음 'ㅣ'는 혀가 가운데 입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의 위치에서 소리 난다. 이를 통해 'ㄴ, ㄷ'과 'ㅣ'는 소리를 낼 때 혀가 닿는 위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ㄷ, ㅌ'이 'ㅣ'를 만날 때, 소리 나는 위치가 'ㅣ'와 가까운 구개음 'ㄴ, ㄷ'으로 바뀌면 좀 더 자연스럽게 쉽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9.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보기>의 말을 된소리되기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고, 올바른 발음을 적어 보자.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 ㉡ 'ㄴ, ㄹ'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보기>

국밥 달다 신고 입고 앉고 닦고
갈 곳 할 적에 갈등(葛藤) 발달(發達)

㉠	㉡	㉢	㉣
국밥[국뺨], 달다 [달따], 입고[입꼬]	신고[신꼬], 앉고 [안꼬], 닦고[담꼬]	갈등[갈똥], 발달 [발딸]	갈 곳[갈꼐], 할 적에[할쩌게]

10.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을 비교해 보고, 그렇게 발음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 ㉠ 아기를 품에 안다[안따].
- ㉡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안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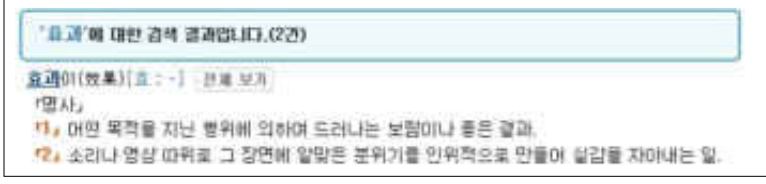
→ ㉠과 ㉡의 밑줄 친 단어는 '안다'라는 같은 형태로 표기되었지만 기본형은 다르다. ㉠의 '안다'는 기본형 역시 '안다'로 용언의 어간 받침이 'ㄴ'이다.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 중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ㄷ'인 어미가 이어진 경우이므로, [안따]로 발음하는 것이 옳바르다. ㉡의 '안다'는 기본형이 '알다'이고, 여기서의 'ㄴ'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 아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충족하지 않는다. 즉 'ㄴ'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ㄷ'에 된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안따]로 발음하는 것이 옳바르다.

4-(1) 음운의 변동 [이론편]

11. <보기>를 바탕으로 평소에 불필요하게 된소리로 발음하는 단어가 있는지 떠올려 보고,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보자.

[보기]

요즘은 발음의 된소리화가 지나치게 진행되어 실제 언어생활에서 불필요하게 단어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때가 있다. '효과(效果)'를 [효:파]로, '불법(不法)'을 [불뻬]으로, '부러지다'를 [뿌러지다]로 발음하는 것이 그 예이다.



→ 고추[고추]([꼬추]×), 동그라미[동그라미]([똥그라미]×), 세련되다[세련되다]([썰련되다]×), 교과서[교과서]([교파서]×), 체증(滯症)체증([체쫐]×)

12. 다음 문자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의 변화를 살펴보자.

예지
주말인데 뭐해?
지금 백합 축제 왔어.

예지
내일 내 생일인 거 알지? 수업 끝나고 놀자.
말형하고 저녁 약속했는데 어찌지?

예지
잡히기만 해. 가만 안 뉘.
농담이야. 내일 네 생일 축하 제대로 해 줄게!

예지
좋지. 내일 보자.

전송

단어	발음	표기된 음운 수	발음되는 음운 수	음운 변동 결과
백합	[배갑]	ㅂ, ㅅ, ㄱ, ㅎ, ㅏ, ㅑ (6개)	ㅂ, ㅅ, ㅋ, ㅓ, ㅕ (5개)	ㄱ + ㅎ → ㅋ
말형	[마텅]	ㅁ, ㅏ, ㄷ, ㅎ, ㅑ, ㅓ (6개)	ㅁ, ㅏ, ㅌ, ㅑ, ㅓ (5개)	ㄷ + ㅎ → ㅌ
잡히기만	[자피기만]	ㅈ, ㅏ, ㅂ, ㅎ, ㅣ, ㅓ, ㅕ, ㅁ, ㅏ, ㅑ, ㅓ (10개)	ㅈ, ㅏ, ㅍ, ㅣ, ㅓ, ㅕ, ㅁ, ㅏ, ㅑ, ㅓ (9개)	ㅂ + ㅎ → ㅍ
축하	[추카]	ㅈ, ㅏ, ㅓ, ㅎ, ㅏ, ㅑ (5개)	ㅈ, ㅏ, ㅋ, ㅓ (4개)	ㄱ + ㅎ → ㅋ
좋지	[조치]	ㅈ, ㅏ, ㅎ, ㅈ, ㅣ (5개)	ㅈ, ㅏ, ㅈ, ㅣ (4개)	ㅎ + ㅈ → ㅈ

→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면 각각 'ㅋ, ㅌ, ㅍ, ㅈ'으로 소리 난다.

4-(1) 음운의 변동 [이론편]

13.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고, 어떤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치는지 써 보자.

·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거센소리되기		구개음화	
· 술하다	→	[술하다]	→	[수타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	[책짜피다]		
· 책잡히다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	[샌노라타]
		· 샌노랑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14. 다음 단어의 활용을 살펴보고, 음운이 변화한 규칙을 찾아보자.

단어	단어의 활용	음운 변화의 규칙
가다	가--고 → (가고)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모음 ‘ㄴ, ㄷ’와 어미의 첫 모음이 같을 때 하나의 모음은 탈락한다.
	가--아 → (가)	
	가--았--다 → (갔다)	
서다	서--니 → (서니)	
	서--어 → (서)	
	서--었--다 → (썼다)	
담그다	담그--고 → (담그고)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모음 ‘ㄷ’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담그--아 → (담그아)	
	담그--았--다 → (담갔다)	
크다	크--니 → (크니)	
	크--어 → (커)	
	크--었--다 → (켰다)	

15. 다음 문장에서 모음이 탈락한 단어를 찾아보고, 단어의 원래 형태와 탈락한 모음을 써 보자. 이때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자.

- ㉠ 그는 학계에 이름이 나 있었다.
 - ㉡ 다시 만나면 기뻐서 말이 안 나올 것이다.
 - ㉢ 소녀의 얼굴은 햇볕에 타 구릿빛이 되었다.
 - ㉣ 가구를 사기 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줄자로 길이를 잴다.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	원래의 형태	탈락한 모음
㉠	나	나--아	ㅏ
㉡	기뻐서	기쁘- + -어서	ㅡ
㉢	타	타- + -아	ㅏ
㉣	잴다	재- + -었- + -다	ㅣ

➔ 모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4-(1) 음운의 변동 [이론편]

16. 다음 문장을 발음해 보고, 밑줄 친 단어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써 보자.

- 환기가 필요하니 창문을 활짝 여시오[여시오/ 여시오].
- 아이가 방 안에서 영금영금 기어[기어/ 기여] 다닌다.
- 봄이 되어[되어/ 되여]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피었다/ 피엌따].
- 당신의 평생소원은 무엇이오[무어시오/ 무어시오]? 세계 일주 아니오[아니오/아니요]?

17.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을 참고하여 앞의 활동 1에서 한 발음이 올바른지 확인해 보자.

제5장 음의 동화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	-----------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 여시오: [여시오](원칙), [여시오](허용) / 기어: [기어](원칙), [기여](허용) / 되어: [되어](원칙), [되여](허용) / 피었다: [피엌따](원칙), [피엌따](허용) / 무엇이오: [무어시오](원칙), [무어시오](허용) / 아니오: [아니오](원칙), [아니요](허용)

18.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골라보자.

- 오늘 아침 일찍 우리는 학교에[학교에/학교예] 갔다. → 학교에
-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이 개었다[개엌따/개엌따]. → 개엌따

19.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고, 음운과 표기의 변화를 살펴보자.

<보기>
 다음 법칙은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ㄷ, ㅌ, ㄷ, ㅌ, ㄷ, ㅌ’ 앞에서의 ‘ㄹ’과 ‘ㄴ’ 소리가 탈락하거나, ‘ㄷ, ㅌ, ㄷ, ㅌ, ㄷ, ㅌ, ㄷ, ㅌ’ 앞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것 등이다.

- | | |
|---------------------|-------------------|
| ㉠ 남녀(男女) : (여)자(女子) | 만년(晩年) : (연)세(年歲) |
| ㉡ 개량(改良) : (양)심(良心) | 급류(急流) : (유)행(流行) |
| ㉢ 쾌락(快樂) : (낙)원(樂園) | 왕래(往來) : (내)일(來日) |

→ 똥는 ‘ㄷ’ 앞에서의 ‘ㄴ’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탈락하여 발음되지 않고 있다. 똥는 각각 ‘ㅌ’, ‘ㄷ’ 앞에서의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탈락하여 발음되지 않고 있다. 똥는 각각 ‘ㄷ’, ‘ㅌ’ 앞에서의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있다.

20.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다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해 보자.

- | | |
|--|----------------------------|
| • 이 <u>녀석</u> 많이 컸네. | • 피천득의 「 <u>은전 한 님</u> 」 |
| • 그릴 <u>리</u> (理)가 없다. | • 몇 <u>년</u> (年) 만에 보는 거지? |
| • 뉴스, <u>니켈</u> , <u>라디오</u> , <u>롤러스케이트</u> | |

4-(1) 음운의 변동 [이론편]

→ 한자어 가운데 '리(理)와 같은 의존 명사나 '년(年)과 같이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또한 '녀석, 님' 등의 고유어나 '뉴스, 니켈, 라디오, 롤러스케이트' 등의 외래어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21. 다음 대화에서 잘못 발음한 말을 찾아 올바른 발음으로 고치고, 그 근거를 써 보자.

㉔	너무 배고파서 단팥이 들어간 빵이 먹고 싶어. 왜 그래? 뉘이 나갔네. [왜 그래]? [너기 나간네].
	너무 배고파서 단팥이 들어간 빵이 먹고 싶어. [너무 배고파서 단팥이 들어간 빵이 먹고 싶어].

㉕	이 배우는 늑지도 않아. [이 배우는 늑지도 아나].
	밤낮으로 관리를 했겠지. [밤나스로 팔리를 한꼰찌].

잘못 발음한 말	올바른 발음	고친 근거
뉘이[너기]	[넉씨]	겹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첫째 받침은 유지되고 둘째 받침은 연음된다. 이때 연음되는 'ㅅ'은 'ㄱ' 소리 뒤에 오므로 된소리로 발음된다.
단팥이[단팥시]	[단팥치]	끝소리가 'ㅌ'인 형태소가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ㅌ'은 구개음 'ㄷ'으로 발음된다.
늑지도[늑찌도]	[늑찌도]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된다. 또한 'ㄱ'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의 'ㅅ'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밤나스로]	[밤나즈로]	출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출받침은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22. 발음과 표기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올바른 발음과 표기 생활을 위해 노력할 점을 말해 보자.

→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기 위해서는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을 반영하여 발음하고, 단어의 본래 뜻을 밝혀 표기해야 한다.

모락고등학교 (경기)

1.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의 예로만 묶인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특이한 것으로 축약을 들 수 있다. 축약은 'A'와 'B'라는 두 음운이 결합하여 'C'라는 제삼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음운 변동이다. 국어의 축약은 주로 'ㅎ'과 다른 자음이 결합할 때 일어난다.

- ㉠ 잃고[일코], 많군[만쿤] ㉡ 얹아[아나], 많지[만치]
- ㉢ 넣은[너은], 놓다[노타] ㉣ 많네[만네], 쌓은[싸은]
- ㉤ 쌓는[싼는], 앓고[안코]

모락고등학교 (경기)

2. 밑줄 친 말 중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탈락의 한 종류로서, 두 개의 모음이 만났을 때 그 중 한 개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

예 쓰- + -어 → [써], 푸- + -아서 → [퍼서]

- ㉠ 눈을 떠 보니 집이었지 뭐야.
- ㉡ 눈에 띄게 네 얼굴이 수척해졌어.
- ㉢ 결국 만형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돼.
- ㉣ 이거 마음에 들면 내가 가져도 괜찮아.
- ㉤ 공책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한참 찾았어.

모락고등학교 (경기)

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유음화는 음운이 동화되는 방향에 따라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눌 수 있다.

- | | |
|---|---|
| ㉠ 순행적 유음화
㉠ 물난리 종로
㉡ 광한루 대관령
㉢ 전라도 논란
㉣ 줄넘기 강릉
㉤ 실내 탄력 | ㉡ 역행적 유음화
㉠ 물난리 종로
㉡ 광한루 대관령
㉢ 전라도 논란
㉣ 줄넘기 강릉
㉤ 실내 탄력 |
|---|---|

모락고등학교 (경기)

4. <보기1>과 <보기2>를 참고로 학생들이 된소리되기 현상을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된소리되기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된소리인 'ㄱ, ㄷ, ㅃ, ㅆ,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보기2>

표준발음법 제6장 된소리되기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ㄴ, ㄹ, ㄷ, ㅌ,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꽃고[꼰고], 넓죽하다[넙쭈카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삼고[삼꼬], 꺾안다[꺾안따]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 안기다[안기다], 굶기다[굶기다]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갈등[갈똥], 물질[물짚]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때가]

- ㉠ '깎아'가 [까까]로 발음되는 이유는 제23항에 따라 받침 'ㄱ'이 'ㄱ'으로 발음되어 뒤에 연결되는 'ㄱ'을 된소리로 만들기 때문이야.
- ㉡ '더듬지'가 [더뎡찌]로 발음되는 것처럼 '감기다' 또한 제24항이 적용되어 [감끼다]로 발음해야 해.
- ㉢ 제24항에 따르면 표기상으로는 똑같이 '신고'라고 할 지라도 그 의미와 성격에 따라 [신포]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과 [신고]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
- ㉣ '넙똥글다'는 [넙똥글다]로 발음해야 하는데, 이는 받침 'ㄹ' 중에서 'ㄹ'만 남아 제2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야.
- ㉤ 사람들이 '내 것'이라는 말을 [내꺼]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27항에 따른 것이야.

모락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협력 → [협녁] ㉡ 휴만 → [휴만]
 ㉢ 옷맵시 → [온맵씨]

- ㉠ ㉠ :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 ㉡ : 음운 변동 후 음운의 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다.
- ㉢ ㉢ : 2번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 ㉠, ㉡, ㉢ :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 ㉠, ㉡, ㉢ :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6. 다음은 문법 수업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입	<p>• 선생님의 설명 : ‘굳이[구지], 끝이[끄치], 붙이다[부치다]’처럼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견디다], 티끌[티끌], 흠이불[흔니불]’ 등에서도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지만 ‘ㅈ, ㅊ’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학습활동을 차례대로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p>				
전개	<p>(1) 각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td> </tr> </table> <p>(2) (1)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동 환경을 정리해 보자. → ㉠에서는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나고, ㉢에서는 ‘흠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난다.</p> <p>(3) 모음 ‘ㅣ’가 속해 있는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의 ‘-이’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이고, ㉡의 ‘이불’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이다.</p>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정리	<p>• 선생님의 설명 : 위의 학습활동에서 살펴본 것처럼 ㉠ 현상은 형태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p>				

- ㉠ 구개음화/한 형태소/형태소 경계/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양재고등학교 (서울)

7. 다음 문장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조건>에 맞게 표준 발음을 쓰시오.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선릉역 서점에 갔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서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했다.

<조건>

작성 방법 : 국민[궁민]

양재고등학교 (서울)

8.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에 적용된 음운 변동이 동일하게 나타난 예가 아닌 것은?

<보기>

국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 누나는 법학과[버팍팍]에 다니고 있다.
- ㉡ 이번 방학에 뜻하지[뜨타지] 않은 행운을 만났다.
- ㉢ 밥을 다 먹었는데[머건는데] 빵도 먹었다.
- ㉣ 친구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나뉘뉘].
- ㉤ 마을 최고의 권력자[겉력짜]는 촌장이었다.

- ㉠ ㉠올해 입학식은 3월 2일이었다.
- ㉡ ㉡이렇게 번듯한 가구를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
- ㉢ ㉢새로 이사 간 우리 집은 분얼만 크다.
- ㉣ ㉣수지가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다.
- ㉤ ㉤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개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음운의 변동 전후로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교체’는 개수의 변화가 없고 ‘탈락’과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며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

- ㉠ ‘배춧잎[배춘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 ‘줄넘기[줄럼끼]’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 ‘국화꽃[구과꽂]’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 ‘닭다리[닥따리]’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 ㉤ ‘편입학[피너팍]’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10. <보기>를 참고할 때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보기>

자음 동화는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거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자음 동화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

이러한 자음 동화 현상은 변화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가 있다. ‘순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뒤의 소리가 앞의 소리를 닮는 것이고, ‘역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앞의 소리가 뒤의 소리를 닮는 것이다.

- ㉠ 광한루 ㉡ 흙만 ㉢ 대관령 ㉣ 달나라 ㉤ 굽는

양재고등학교 (서울)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보기>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ㅈ, ㅉ, ㅊ, ㅅ, ㅆ, ㅌ, ㅍ, ㅍ, ㅍ, ㅍ)’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올 때
- ㉡ 어간 받침 ‘ㄴ(Lx), ㄹ(ㄹx)’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한자어에서, ‘ㄱ’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 | | |
|------|------|--------|----|
| ㉠ | ㉡ | ㉢ | ㉣ |
| 책상 | 신다 | 절기(節氣) | 흙다 |
| 국밥 | 젊다 | 발전(發展) | 넓다 |
| 각두기 | 닭다 | 전등(前燈) | 밝다 |
| 압박감 | 끼었다 | 설계(設計) | 함다 |
| 야단법석 | 뛰어넘다 | 결과(結果) | 옳다 |

신송고등학교 (인천)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쓰시오.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문법탐구 모둠활동에서 같은 단어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를 공부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닭은’은 (㉠), ‘닭 앞’은 이어서 발음하면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우리말 바로 쓰기” 목적 명기

1. 한글 맞춤법의 개념과 필요성

개념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뜻함.
필요성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으로써, 올바른 표기 생활을 위해 맞춤법이 필요함.

2.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칙 1. '소리대로 적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을 의미함. • 한글은 표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이므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해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함. 예) 돌[돌], 눈물[눈물], 꿈[꿈]
원칙 2. '어법에 맞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형태소를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동일하게 표기함. • 단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있으므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음. →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으면 그 뜻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예) 읽어[일거], 읽는[잉는], 읽자[익짜] → ‘읽-’

3.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과 필요성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	띄어쓰기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 → 독립적으로 쓰이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 단어(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감탄사, 조사)는 띄어 써야 함.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 제41항) → 다만,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그 앞의 말에 붙여 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띄어쓰기를 하면 안 한 경우보다 독해가 훨씬 수월함. •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알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문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임.

“우리말 바로 쓰기” 온라인 문제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고,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보기 의 단어를 ㉠과 ㉡로 나누어 보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뜻을 구별하기 쉽게 하도록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기]
바람, 길이, 오뚝이, 드러나다, 쓰러지다, 넘어지다, 맞히다

㉠	㉡
바람, 드러나다, 쓰러지다	길이, 오뚝이, 넘어지다, 맞히다

2. 다음 문장을 다양하게 띄어 써 보고,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이를 바탕으로 띄어쓰기가 필요한 이유를 말해 보자.

오늘밤나무사온다.

띄어 쓴 문장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밤 나무 사 온다. • 오늘 밤나무 사 온다. • 오늘 밤 나 무 사 온다 • 오늘 밤 나 무사 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밤에 나무를 사 가지고 온다. • 오늘 밤나무를 사 가지고 온다. • 오늘 밤에 나는 무를 사 가지고 온다. • 오늘 밤에 성이 나찌인 무사(武士)가 온다.

➔ 띄어쓰기가 필요한 이유: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문장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문자 생활을 위해서는 알맞게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3.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제시된 단어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 보고, 어느 규정을 근거로 했는지 해당하는 기호를 써 보자.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

다만,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로’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 ㉤

- 규리는 갑자기 머리를 (씩둑/씩둑) 잘랐다. …………… 썩둑(㉠)
- 한숨 자고 나니 몸이 아주 (산뜻/산뜻)하다. …………… 산뜻(㉡)
- 할머니는 갈 길이 멀어 (걸음/거름)을 재촉하셨다. …………… 걸음(㉢)
-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깨끄시) 씻도록 해요. …………… 깨끗이(㉤)
- 그는 (반듯이/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겠다고 약속했다. …………… 반드시(㉤)

4-(2) 우리말 바로 쓰기 [이론편]

4.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 보고, 각 단어가 사이소리를 표기하는 <보기>의 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해 보자.

<보기>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날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가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가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한다. 사이시옷은 사이시옷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쓰는 ‘ㅅ’의 이름이다.

사이시옷은 ㉠ ‘고유어+고유어’로 된 합성어 또는 ㉡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 배+길 → 뱃길[배깁/뱃깁]
- ㉡ 해+수(數) → 햇수[해쑤/햐쑤]
- ㉢ 후(後)+날 → 훗날[훈날]
- ㉣ 나무+잎 → 나뭇잎[나문닙]
- ㉤ 예사(例事)+일 → 예삿일[예산닐]
- ㉥ 아래+마을 → 아랫마을[아랜마을]

사이소리를 표기하는 조건	㉠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 뱃길	㉡ 햇수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 아랫마을	㉢ 훗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 나뭇잎	㉤ 예삿일

5. 다음 단어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 보고, 그것이 왜 올바른 표기인지 그 근거를 설명해 보자.

해님(○)	햐님(×)
-------	-------

사이시옷은 합성어 중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받치어 적는다. ‘해님’은 합성어가 아니라 어근인 ‘해’에 접미사 ‘-님’이 붙은 파생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해님’으로 표기해야 한다.

인사말(○)	인삿말(×)
--------	--------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을 이르는 ‘인사말’의 표준 발음은 [인사말]이다. ‘한자어+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나 ‘ㄴ’ 소리가 덧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인사말’로 표기해야 한다.

초점(焦點)(○)	초점(焦點)(×)
-----------	-----------

‘초점’은 합성어이면서 [초점]으로 발음되지만 ‘한자어+한자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튀간, 횡수’ 이외에 두 글자로 된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4-(2) 우리말 바로 쓰기 [이론편]

6. 다음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 이제 믿을것은 오직 실력 뿐이다.
- 그가 이곳을 떠난지 일주일이 되었다.
- 가을이 되자 사과, 배등 많은 과일이 나왔다.
- 체육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신발 한켠레를 받았다.
- 동네에서 소문난 수재였던 김군은 이제 김 영석박사라 불린다.



-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 그가 이곳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었다.
- 가을이 되자 사과, 배 등 많은 과일이 나왔다.
- 체육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신발 한 켠레를 받았다.
- 동네에서 소문난 수재였던 김 군은 이제 김영석 박사라 불린다.

7. 다음 괄호 안의 말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을 고르고, 그 근거를 써 보자.

[나같이(○) / 나 같이] 선한 사람이 [그와같이 / 그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는다.

→ 근거: '나같이'의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지닌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체언 뒤에 붙여 쓴다. '그와 같이'의 '같이'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라는 뜻의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쓴다.

너는 [너대로(○) / 너 대로] 그 일을 [아는대로 / 아는 대로(○)] 설명해라.

→ 근거: '너대로'의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체언 뒤에 붙여 쓴다. '아는 대로'의 '대로'는 '알다'라는 용언의 수식을 받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뜻을 지닌 의존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쓴다.

8. “그 사람은 친구예요/예요?”에서 맞는 표기는 무엇인가요?

→ '친구예요'가 맞는 표기입니다. '-예요'는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이-' 뒤에 어미 '-예요'가 붙은 '-이예요'의 준말입니다. '친구(이)다'처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이-'가 쉽게 생략되지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친구예요'처럼 '-예요'의 형태로 쓰입니다.

9. “참석한 인원은 다섯 명이 안된다/안 된다.”에서 바른 띄어쓰기는 무엇인가요?

→ '안 된다.'가 맞는 표기입니다. 여기서 '안'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뒤에 오는 '되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안 된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10. “철수가 집에 옴”이라는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나요?

→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규정을 보면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마침표를 써야 하나, 쓰지 않는 것도 무방합니다.

4-(2) 우리말 바로 쓰기 [이론편]

11.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할 때에는 “승아가 상을 탔데/탔대.” 중 무엇이 맞을까요?

→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비해,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할 때에는 ‘-다고 해’의 준말인 ‘-대’를 써야 하므로 ‘탔대.’가 바른 표기입니다.

12. ‘비율, 실패율’은 ‘율’이라 표기하는데, ‘합격률, 경쟁률’은 왜 ‘률’로 표기할까요?

→ ‘률’은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합격률, 경쟁률’로 적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 안에서)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은 ‘율’로 적어야 합니다. ‘비율, 실패율’ 외에도 ‘선율, 전율, 백분율’ 등이 이러한 예외적 규정의 예에 해당합니다.

13. 다음 그림을 보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한 사례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p>어서 오십시오.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p>	<p>칼국수 칼국수 면은 국내산 밀가루로만 만듬.</p>
<p>○○청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석구석 꼼꼼이 청소해 드립니다.</p>	<p>저는 감자가 들어간 것이 제일 낳았어요.</p>

‘오십시오 → 오십시오’, ‘만듬 → 만듦’, ‘꼼꼼이 → 꼼꼼히’, ‘낳았어요 → 나았어요’

발곡고등학교 (경기)

1.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쓴 문장은?

- ㉠ 몹시 더웠는데 바람을 쐬니까 기분이 좋다.
- ㉡ 갈국수를 먹어야 하니 깍뚜기를 듬뿍 담아라.
- ㉢ 모든 학생들이 대청소를 하느라 야단법석이다.
- ㉣ 정부는 낮은 출산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 올 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이전 년도보다 높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2. ㉠~㉤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쓴 것으로 바른 것은?

남자 :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수없이많은 것들이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되지요. ㉡그저시간이 지난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개의 이파리들을되돌려주고도아무소리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가 한 마리를 길러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습니다. 덤, 덤, 덤 ㉣난뭔가진실한걸안것같습니다. 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그게유일한자랑이될 겁니다.

- ㉠ ㉠ : 헤아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 ㉡ ㉡ :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 ㉢ ㉢ : 수천개의 이파리들을 되돌려 주고도
- ㉣ ㉣ :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 ㉤ ㉤ :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3. 다음 글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갖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침 운동으로 줄넘기를 시작한지 이틀째다. 줄넘기를 시작하면 오 분만에 숨이 찬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래도 한달 동안 꾸준히 해 볼 생각이다. 큰 욕심은 없다. 소녀시대 율야만큼 날씬해지고 싶을 뿐이다.

- ㉠ '시작한지'에서 '지'는 '동작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오 분만'에서 '만'은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다는 의미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안 된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 '한달'에서 '달'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율야만큼'에서 '만큼'은 '같은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4. 다음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쓰지 않은 사람은?

강철 : 점심시간에 했던 풋살 경기는 어떻게 됐어?
 어준 : 12반이 이겼어. 전반전에는 삼 대 삼이었는데, 후반전에 12반이 한 골을 더 넣었지.
 아영 : 그런데 심판이 매우 편파적이었다고 하는데?
 순이 :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지 않나?
 용민 : 내가 내일 학교에 가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게.

- ㉠ 강철
- ㉡ 어준
- ㉢ 아영
- ㉣ 순이
- ㉤ 용민

발곡고등학교 (경기)

5. <조건>을 참고하여 각 단어의 정확한 표기와 표기의 근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조건>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다.

⇓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난다.

⇓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리 'ㄱ, ㅌ, ㅍ'로 난다.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가 'ㄴ, ㄹ' 앞에 서 'ㄴ' 소리가 덧난다.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ㄹ' 소리가 덧난다.
--------------------------------------	---------------------------------------	------------------------------------

⇓ ⇓ ⇓

사이시옷을 적는다.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 '뒷말'은 뒷말 '일'의 모음 'ㅣ'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 '양치물'의 뒷말 '물'의 첫소리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 '비소리'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 '국숫집'은 고유어 '국수'와 '집'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다.
- ㉤ '갯수'는 한자어 개(個)와 수(數)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고유어가 아니지만 예외로 사이시옷 적는 것을 인정한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6. (가)를 바탕으로 (나)의 표현을 검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5항>
 [붙임2] ‘기’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새, 썼’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나)

<보기>

ㄱ. ‘햇볕 좀 쬐려고’는 고치지 않는다.
 ㄴ. ‘말도 안 되는’은 ‘말도 안 되는’으로 고친다.
 ㄷ. ‘타고 오면 돼’는 ‘타고 오면 되’로 고친다.
 ㄹ. ‘나중에 봐요’는 ‘나중에 봐요’로 고친다.
 ㅁ. ‘일 해야 돼’는 ‘일 해야 돼’로 고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효문고등학교 (서울)

7. ㉠~㉣에 대한 답변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발표 주제>
 올바른 띄어쓰기의 사용

<발표 내용>

1. <한글맞춤법 총칙 제2장>에 대한 설명
2. 햇갈리기 쉬운 띄어쓰기의 예시 설명

<발표를 들은 후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

㉠ : ‘어쩔수없었다’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가고 싶은 데가 있다’에서 ‘데’는 왜 띄어 쓰나요?
 ㉢ : ‘피아니스트마냥’에서 ‘마냥’을 앞에 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노력한 만큼’과 ‘나도 너만큼’에서 ‘만큼’의 띄어쓰기는 왜 다른가요?
 ㉤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서 ‘도와’와 ‘드린다’는 붙여 쓰야 하나요? 띄어 써야 하나요?

- ① ㉠ : ‘어쩔 수 없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② ㉡ :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③ ㉢ : ‘마냥’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④ ㉣ :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⑤ ㉤ : ‘드린다’는 ‘도와’에 결합한 보조 용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8. 아래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있는 대로 찾아 모두 바르게 고치시오. (단,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고치면 감점)(맞춤법에 어긋난 부분과 바르게 고친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

친구는 건넌방에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조용히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랫집은 텅 비어있었고 대문은 잠겨 있었다. 주변을 살살히 뒤졌지만 열쇠 같은 건 없었다. 달빛 아래 나무가지가 언뜻언뜻 보였고 깨끗이 정리된 건물 구석에는 찻간 불빛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어렴풋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빛 근처에서 말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짹짹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회전틀이 왜 이렇게 별로야?”

“그러게 얼른 이 지긋지긋한 셋방을 떠야하는데.”

순간 지금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면 살아날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3까지 세고 뛰어 나가기로 했다. 밤하늘의 달은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만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달팽이는 더드미로 감각을 느낀다.
 ㄴ. 오늘 저녁에 우리 고깃집에서 만나자.
 ㄷ. 나는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좋아한다.
 ㄹ. 학생들은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했다.
 ㅁ. 그녀는 씩씩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ㅂ.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ㅁ, ㅂ
 ⑤ ㄴ, ㄷ, ㄹ, 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 ‘꽃이’, ‘꽃만’, ‘꽃도’를 [꼬치], [꼐만], [꼐또]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化]’을 ‘꽃’, ‘꼐’, ‘꼐’이라는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나) 한자음 ‘녀, 뇨, 뉴, 니’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女子), 예의(禮儀)’처럼 적고, 그 외에는 ‘남녀(男女), 혼례(婚禮)’처럼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10.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새 문이 닫힌 것이다.
 ㄴ. 이곳은 나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ㄷ. 마음을 다**친** 사람에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 ① ㄱ의 ‘닫힌’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② ㄱ의 ‘닫힌’은 독서의 능률이 떨어지는 표기이군.
 ③ ㄴ의 ‘많-’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이군.
 ④ ㄷ의 ‘다친’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군.
 ⑤ ㄱ의 ‘닫힌’과 ㄷ의 ‘다친’은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군.

흥진고등학교 (경기)

11. (나)를 참고할 때,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 진열(陳烈), 성공률(成功率)
 ㉡ 분열(分裂), 외형율(外形律)
 ㉢ 선렬(先烈), 내재율(內在律)
 ㉣ 확율(確率), 실패률(失敗率)
 ㉤ 규율(規律), 시청율(視聽率)

흥진고등학교 (경기)

12.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3가지를 찾아 각각 바르게 고치시오. (단, 띄어쓰기 오류는 찾지 말 것.)

<보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 하지만 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백분률로 환산해서 적어야 하는데 정답을 모르겠다. 어떤 댓가를 바라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질까?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됐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부보다는 역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어야 해.

흥진고등학교 (경기)

1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어(○)/머겨(X), 놓아(○)/노코(X)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학습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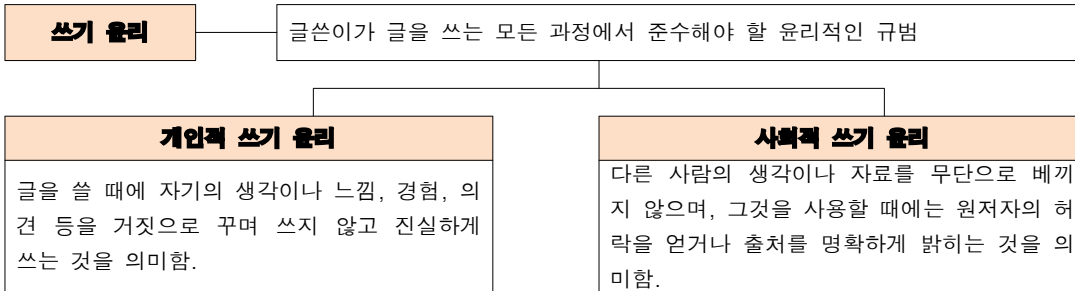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설명적, 예시적, 논리적
제재	책임감 있게 글쓰기		
주제	쓰기 윤리의 중요성과 책임감 있게 글을 쓰기 위한 방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 윤리의 종류를 분류와 예시의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설명함. • 끝부분에서 책임감 있는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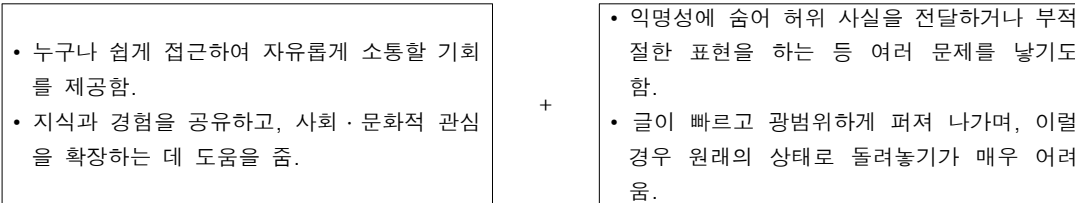
◆구성

처음	쓰기 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가운데 ①	쓰기 윤리의 종류 • 개인적 쓰기 윤리의 개념과 위반 사례 • 사회적 쓰기 윤리의 개념과 위반 사례
가운데 ②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
끝	쓰기 환경의 변화와 쓰기 윤리 준수의 중요성

1. 쓰기 윤리의 개념



2. 인터넷 매체의 특성



↓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특히 윤리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함.

3.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글을 써야 함.

책임감 있는 글쓰기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함.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구상, 글이나 사진, 그림, 음악 등의 자료를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해야 함.

4. 쓰기 윤리 관수의 중요성

쓰기 윤리의 관수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한 만큼 자기가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함.

중요성

더욱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음.

“책임감 있는 글쓰기 관수” 온라인 수업

1. 쓰기 윤리의 의미와 오늘날 글쓰기 환경의 변화를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지녀야 하는 태도를 말해 보자.

- 쓰기 윤리의 의미: 글쓴이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
- 오늘날 글쓰기 환경의 변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후대가 편리한 전자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글을 쓸 때, 자신이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2. 다음 쓰기 윤리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정리해 보자.

	개념	필요성
개인적 쓰기 윤리	글을 쓸 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임.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임.
사회적 쓰기 윤리	글을 쓸 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임.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어서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임.

4-(3)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이론편]

3. 이 글(** 분식에서 절대 배달시키지 마세요)에서 쓰기 윤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행동과 그 이유를 정리해 보자.

문제가 되는 행동		
'맛집도사'는 허위 사실을 써서 특정 업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꾸며 냈다. 또한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찍은 것처럼 행동했다.	'즐거우리'는 음식의 양이 적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했으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	'파란하늘'은 '맛집도사'가 쓴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동조했으며, 그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려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이유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인터넷상에 쓰고, 그 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또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뜨린다면 특정 업체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터넷 매체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문화적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특히 윤리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나) 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전자를 ㉠'개인적 쓰기 윤리'라고 하고, 후자를 ㉡'사회적 쓰기 윤리'라고 한다.

개인적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다)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문헌 자료 외에 사진이나 그림, 음성이나 음향, 동영상과 같은 자료도 흔히 사용한다. 글을 쓰는 사람이 직접 생산한 자료가 아니라면 모두 윤리적 규범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쓰기 윤리의 규범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므로 사회적 윤리라고 한다.

(라)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한다.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글로 쓰면 그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오류 없이 정확해야 한다. 또한 왜곡, 과장, 축소하지 않은 정보를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 내용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은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을 다룰 때에는 내용이 공정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휴대가 편리한 전자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우리는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한 만큼 자기가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이를 지킨다면 우리 사회에 더욱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연수고등학교 (인천)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인터넷 매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 ㉡ 인터넷의 특성 및 사회적 쓰기 윤리 위반 사례
- ㉢ 글쓰기 환경의 변화와 쓰기 윤리 준수의 중요성
- ㉣ 인터넷 매체에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 ㉤ 인터넷 매체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

연수고등학교 (인천)

2. ㉠, ㉡이 바르게 적용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원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하였다.	수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자료인지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	블로그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방향으로 글을 썼다.	PPT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화제성 있는 동영상을 사용했다.
㉢	지난 주말에 본 영화에 대한 느낌과 평가를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썼다.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인용 출처를 밝혀 썼다.
㉣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의 내용 중 일부를 과장하여 썼다.	분위기에 어울리는 영화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 재편집한 후 사용하였다.	글을 쓴 사람이 직접 만들어 낸 자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제작에 힘썼다.

- ㉠ a ㉡ b ㉢ c
- ㉣ d ㉤ 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전자를 '개인적 쓰기 윤리'라고 하고, 후자를 '사회적 쓰기 윤리'라고 한다. ㉠개인적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문헌 자료 외에 사진이나 그림, 음성이나 음향, 동영상과 같은 자료도 흔히 사용한다. 글을 쓰는 사람이 직접 생산한 자료가 아니라면 모두 윤리적 규범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쓰기 윤리의 규범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므로 사회적 윤리라고 한다.

(나)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한다.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글로 쓰면 그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오류 없이 정확해야 한다.

둘째,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써야 한다.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은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보일 목적으로 글을 썼는데, 그 표현이 과격하거나 저급하여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글을 쓴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도 있다. 폭력적인 언어 표현은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언어 표현이 적절한지를 유의하여 점검해야 한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구상, 글이나 사진, 그림, 음악 등의 자료를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인 양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용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 출처를 밝히더라도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울산동천고등학교 (울산)

3. (가)의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할 때,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념	필요성	어긴 사례
개인적 쓰기 윤리	㉠	㉡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글을 쓸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함.
사회적 쓰기 윤리	㉢	㉣	㉤

- ㉠ 자기의 생각, 느낌 등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임.
- ㉡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임.
- ㉢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고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임.
- ㉣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고 범죄 행위로도 간주되기 때문임.
- ㉤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짜깁기해서 직접 쓴 것처럼 꾸며 제출함.

울산동천고등학교 (울산)

4. 아래 <보기>에서 위반한 글쓰기 규범을 뒷글의 ㉠~㉣ 중에서 찾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목 : 일제 강점기 시인, 운동주

내용 : 오늘은 제가 과제로 조사하게 된 운동주 시인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규슈에서 옥사했다고 한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저항시인이라고 했는데 대표작중 '서시'를 보면 부끄러움이 많고 저항하지 못했을 것 같더라. 나만 그렇게 생각했으려나? 대표작이었는데 솔직히 이해도 안가고 유명하긴한데 처음 보게 되어서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옥사했다고 하니 뭔가 하긴했겠지... 시인의 인생을 다시보고 본받아 봐야겠다.

국어 수행평가 온라인 과제 제출

- ㉠ ㉠을 고려하여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 ㉡ ㉠을 고려하여 조사 과제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수정해야 한다.
- ㉢ ㉢을 고려하여 대상을 비판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
- ㉣ ㉢을 고려하여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을 모두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 ㉤ ㉢을 고려하여 대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

5. 다음 인터넷 게시판의 글에 대해 쓰기 윤리와 관련하여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음대로 수다방	목록
제목 : ○○ 분식에서 절대 배달시키지 마세요.	맛집도사
<p>지난주 토요일, 서울 △△동의 ○○ 분식에서 국물 떡볶이와 튀김을 시켰습니다. 주문할 때에는 분명히 30분 이내에 배달된다고 했는데, 주문한 지 한 시간이 다 되어도 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p> <p>결국 한 시간 넘게 기다려서 받은 음식은 최악이었습니다. 떡볶이는 불어서 국물이 거의 없었고, 튀김 대신 엉뚱하게 김밥을 갖다 줬어요. 여기 증거 사진 올립니다. 못 먹겠다고 환불해 달라고 하니 환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전 이 가게 불매운동할 겁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p>	
↳즐거우리 : 양도 코딱지만큼 주면서 배달까지 늦다니! 완전 사기꾼이네.	
↳파란하늘 : 헉! 저도 여기 단골인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누리소통망(SNS)에 이 글을 그대로 올려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모험가 : 저 사진 본인이 직접 찍은 게 맞나요? 제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갖다 쓰신 것 같은데요. 남의 저작물을 원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출처 표시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쓴 걸 보면 위 내용도 사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소나무 : ○○ 분식 사장입니다. 이 글 때문에 요즘 손님이 줄었나 보네요. 갑자기 손님 수가 확 줄어서 가게 사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 손님 기억합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대라 배달하려면 한 시간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짜고짜 "30분 안에 오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문한 튀김 대신 김밥이 배달 왔다고요? 그건 처음부터 김밥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통화 녹음 내용과 주문서도 보관 중입니다. 이 글은 얼른 내려 주세요.	
↳관리자 : '맛집도사' 님에게 게시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맛집도사' 님이 사과하신다고 하니, 사과의 글이 올라온 이후에 이 게시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집도사 : 게시판에 거짓으로 내용을 올리고 물의를 빚게 되어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달이 늦어 확김에 글을 썼는데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특히 '소나무' 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감정적으로 글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① '즐거우리'는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다.
- ② '즐거우리'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
- ③ '파란하늘'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려고 하고 있다.

- ④ '모험가'는 '맛집도사'에게 저작권을 침해 당해 저작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⑤ '맛집도사'는 허위 사실을 써서 업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꾸며 내어 피해를 입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윤리가 있듯이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이를 '쓰기 윤리'라고 한다. 쓰기 윤리는 '글쓰기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쓰기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블로그, 누리소통망(SNS)과 같은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넷 매체에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면서 의견을 덧붙여 사회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매체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문화적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특히 윤리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전자를 '개인적 쓰기 윤리'라고 하고, 후자를 '사회적 쓰기 윤리'라고 한다.

개인적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자.

이 사례에 등장하는 학생은 지난 주말에 본 영화에 대한 글을 쓸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하여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기고 있다. 글을 쓰는 사람의 실제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수필, 자서전, 회고록, 일기 등과 같은 글을 쓸 때에는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논설문과 같이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신념 등을 담아야 하는 글을 쓸 때에도 개인적인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문헌 자료 외에 사진이나 그림, 음성이나 음향, 동영상과 같은 자료도 흔히 사용한다. 글을 쓰는 사람이 직접 생산한 자료가 아니라면 모두 윤리적 규범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쓰기 윤리의 규범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므로 사회적 윤리라고 한다.

이 사례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며 제출했다. 이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일이며,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어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 개인 간의 편지나 전화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든 개인 주변의 관심을 끄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불특정한 다수에게 공개되어 그 글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한다.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글로 쓰면 그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오류 없이 정확해야 한다. 또한 ㉢왜곡, 과장, 축소하지 않은 정보를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 내용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써야 한다.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은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을 다룰 때에는 내용이 공정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보일 목적으로 글을 썼는데, 그 표현이 과격하거나 달성하기는커녕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도 있다. 폭력적인 언어 표현은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언어 표현이 적절한지를 유의하여 점검해야 한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구상, 글이나 사진, 그림, 음악 등의 자료를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인 양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용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 출처를 밝히더라도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인터넷 매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자칫 표절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휴대가 편리한 전자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

다. 우리는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한 만큼 자기가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이를 지키다면 우리 사회에 더욱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한성고등학교 (서울)

6. 윗글에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 ㉠ 쓰기 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 ㉡ 책임감 있는 글쓰기의 필요성과 방법
- ㉢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 지녀야 할 태도
- ㉣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의 개념
- ㉤ 인터넷 장시간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의학적 약영향

한성고등학교 (서울)

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직접적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사회 공동의 의견 형성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 ㉡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정보나 자료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 ㉢ 개인적 쓰기 윤리의 위반은 사회적으로 큰 경제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 ㉣ 공정성을 상실한 내용의 글은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 ㉤ 인터넷의 발달로 변화한 글쓰기 환경으로 인해 쓰기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한성고등학교 (서울)

8. 밑줄 친 ㉠~㉣의 사전적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사전에 허락이 없음. 또는 아무 사유가 없음.
- ㉡ ㉡ : 특별히 정하지 아니함.
- ㉢ ㉢ :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꾸민 위세.
- ㉣ ㉣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 ㉤ ㉤ : 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생환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22.⑤ 23.① 24.③ 25.① 26.② 27.① 28.⑤ 29.① 30.③ 31.④ 32.③ 33.④ 34.② 35.④ 36.⑤ 37.④ 38.② 39.㉞는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의미하고, ㉞가 꺼져 있었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40.① 41.⑤ 42.③ 43.④ 44.② 45.⑤ 46.① 47.⑤ 48.상징적 의미-할머니의 모성애, 혈액의 정을 상징한다. 역할-구령이가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49.⑤ 50.④ 51.④ 52.③ 53.⑤ 54.⑤ 55.② 56.무속 신앙을 믿는 할머니는 구령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해 즐기고,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위로하고 달래서 배웅한다. 이 사건을 통해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된다.

2-(3)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1.② 2.④ 3.⑤ 4.② 5.③ 6.④ 7.⑤ 8.④ 9.④ 10.③ 11.③ 12.② 13.③ 14.④ 15.⑤ 16.④ 17.① 18.④ 19.④ 20.② 21.② 22.생각이 바뀌기 전에 집이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이다. 생각이 바뀐 후 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다. 23.⑤ 24.⑤ 25.㉞-C.U. ㉞-인서트(Ins.), ㉞-내레이션 26.② 27.③ 28.④ 29.⑤ 30.두 갈래 모두 대사와 해설, 지시문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두 갈래 모두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현재형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두 갈래 모두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결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며 삶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31.④ 32.① 33.④ 34.② 35.③ 36.신을 구성단위로 하여 시간과 공간을 표시한다. 지시문과 대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제시한다. 시유(C.U.)와 같이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를 사용한다. 37.① 38.② 39.④ 40.④ 41.⑤ 42.(1)몽타주 (2)긴밀성이 높아진다. 사건의 진행을 축약해서 보여준다. 43.③ 44.②

2-(4) 한 그루 나무처럼

1.① 2.③ 3.⑤ 4.④ 5.② 6.④ 7.우주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며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데 참나무를 우주나무로 삼은 이유는 '나'가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 참나무를 찾아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기 때문이다. 8.⑤ 9.③ 10.④ 11.② 12.⑤ 13.① 14.⑤ 15.④ 16.② 17.⑤ 18.⑤ 19.⑤ 20.① 21.③ 22.① 23.⑤ 24.③ 25.④ 26.⑤ 27.⑤ 28.⑤ 29.④ 30.⑤ 31.③ 32. (1)장도리로 참

나무에 박혀 있던 녹슨 대못을 빼내어 주었다. (2)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다. 33.④ 34.④ 35.①

3-(1)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1.② 2.① 3.⑤ 4.② 5.① 6.④ 7.⑤ 8.③ 9.⑤ 10.② 11.③ 12.⑤ 13.② 14.⑤ 15.① 16.② 17.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8.② 19.① 20.③ 21.① 22.⑤ 23.⑤ 24.② 25.① 26.③ 27.② 28.⑤ 29.(가)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성인의 약 2배 수준이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30.① 31.④ 32.③ 33.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적절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34.① 35.④ 36.③ 37.⑤ 38.④

3-(2)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1.③ 2.④ 3.④ 4.㉞-한 달도 남지 않은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를 준비해야 하지만,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음 ㉞-음악실 청소 부담을 줄이고 주말에 강사의 연주 지도를 받으며 집중 연습을 할 수 있게 됨 5.④ 6.③ 7.④ 8.⑤ 9.① 10.③ 11.㉞-상대방의 처지와 관점 이해하기 ㉞-대안 제시 및 상호 검토하기 12.④ 13.⑤ 14.② 15.⑤ 16.③ 17.④ 18.② 19.① 20.④ 21.갈등의 원인을 분석한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22.③ 23.② 24.① 25.④ 26.③ 27.재민은 주말 네 시 이후에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말은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신 주중 사 일 동안 원하는 시간대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28.① 29.④ 30.④ 31.② 32.④

4-(1) 음운의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포], 선릉역[설릉역], 갔는데[간는데], 잘못[잘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캔따] 8. ⑤ 9.① 10.④ 11.② 12.㉞ [달근] ㉞ [다가페] 13.② 14.③ 15.③ 16.④ 17.㉞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③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ㄹ'의 뒤에서 (4) 비음 'ㄴ'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③ 62.㉠비음화: 국물[궁물], 단는[단는], 잡는[잠는], 염려[염녀], 종로[종노], 죽녹원[중노권], 영릉[영능] ㉡유음화: 실내[실래], 단란[달란], 한라산[할라산] 63.②

4-(2) 우리말 바로 쓰기

1.① 2.④ 3.⑤ 4.③ 5.④ 6.② 7.⑤ 8.살살히→ 살살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둑싹둑→ 싹둑싹둑, 회전롤→ 회전울, 촛점→ 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률→ 백분율, 댓가→ 대가, 빼어야→ 빼야(빼어야) 13.② 14.⑤ 15.③ 16.⑤ 17.④ 18.⑤ 19.(1)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2) ㉠ 빗물, 아랫마을 ㉡ 뒷일, 깻잎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 만마리가, 선롤→선울, 몹씨→몹시, 앓은 체→앓은 채,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③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울→황금률: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울'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⑤ 35.① 36.① 37.운동한ㄴ만큼ㄴ좋은ㄴ결과를ㄴ연기를ㄴ바랐지만ㄴ일등은커녕ㄴ꿀찌를ㄴ했다 38.1) 머거→ 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 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누나, 짹짹한 음식은 몸에 해로워.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잇몸-(4), 대가-(6) 46.몽둥그려→몽뚱그려:㉠, 슝슝한→슝슝한:㉡ 47.④ 48.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

돌아간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ㄴ시작한ㄴ지ㄴ이틀째인데ㄴ겨우ㄴ열ㄴ개를ㄴ할ㄴ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① 64. ㄱ. 되요→돼요 ㄴ. 뵈요→ 뵈요 ㄹ: 순대국→ 순댓국 65.② 66.② 67.③ 68.⑤ 69.④ 70.③ 71.④ 72.⑤ 73.③ 74.③ 75.㉠은 '너대로', ㉡은 '아는 대로'로 써야 하고, 그 근거는 ㉠의 '대로'는 조사, ㉡의 '대로'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이다.

4-(3)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1.② 2.③ 3.② 4.② 5.④ 6.⑤ 7.② 8.③ 9.⑤ 10.① 11.⑤ 12.③ 13.② 14.⑤ 15.① 16.③ 17.⑤ 18.③ 19.⑤ 20.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내용의 글을 썼을 때에도 원상태로 돌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끝 -

충청만국어
www.chongmangug.co.kr
기본 문제
오류 체크
자습서 파일
시험 대비 자료

1-(1)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1. ③

▶ 관심 분야의 탐색을 위한 독서이기에 관심 분야에서 벗어나면 많은 책을 찾을 필요가 없음

2. ②

▶ 진로에 도움이 된다면 책의 두께는 고려할 대상이 되지 않음.

3. ⑤

▶ 저자 기호는 저자명을 문자나 숫자 등으로 나타낸 기호로, 같은 저자의 자료를 한곳에 모아 주는 역할을 한다.

4. ③

㉠ ㉡ - 내용 조직하기 및 표현하기 ㉢ ㉣ - 고쳐쓰기 및 공유하기 ㉤ ㉥ - 계획하기 ㉦ ㉧ - 고쳐쓰기 및 공유하기

5. ①

▶ ㉢: 기술과학, ㉣: 예술

6. ③

▶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만 찾아야 함.

7. ④

㉠ 에베레스트산이 그려진 계단의 예로 알 수 있음. ㉡ 광고 기획자, 광고 문안가 등이 제시됨. ㉢ 세 가지가 나열됨.

8. ④

▶ 내용 공유이기 때문에 반박할 필요가 없음.

10. ④

▶ (가)는 한국 십진분류법이고, (나)는 듀이 십진분류법이다.

1-(2) 글로 쓰는 나의 꿈

1. ①

ㄷ. 객관적인 견해의 자료이어야 함

ㄹ. 분명한 의미를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됨

▶ 넣어둬, 패턴 공략 ◀

국어 시험에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를 구별 판단하는 것은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객관적(있는 그대로)-누가 보아도 동일한 사실.

*주관적-개인의 생각, 감정 등이 반영.

2. ⑤

▶ 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함

3. ②

▶ 자신의 꿈인 로봇 공학자에 관한 글이니 적절함

① 설득이 아닌 소개글임 ③ 독자가 집중하고 읽을 수 있게 관심과 흥미를 끌 필요가 있음 ④ 소개글은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써야함 ⑤ 인터넷 매체의 글은 독자의 반응

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4. ③

▶ 양쪽 의견을 모두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함

5. ③

▶ 고칠 필요 없음

6. ④

▶ 친구나 가족처럼 친근한 이미지이며 ~갈고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① 비유적 표현이 없음 ② ③ ⑤ 로봇의 친근함이 없음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빈출 비유법 (★★★)

1) 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3) 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4) 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 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6) 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 (빵: 음식, 먹거리)

7) 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명명, 졸졸졸)

8) 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8. ②

▶ 로봇 공학자로 성장할 나의 미래를 응원해 달라는 당부의 말은 주제와 관련됨

9. ①

▶ 로봇의 구성 요소는 없음

② '로봇 공학자는 산업, 군사, 의료,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통해 알 수 있음. ③ '많은 전문가가 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으로 인공 지능 전문가, 로봇 공학자, 로봇 윤리학자 등 로봇과 관련된 직종을 꼽고 있습니다.' 통해 알 수 있음.

④ '로봇 공학은 다양한 공학 분야가 융합되어 있으므로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통해 알 수 있음. ⑤ '첫째로 호기심을 갖고 전혀 관련 없는 것들도 연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지녀야 하고, 둘째로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지녀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